

# 배우 정우성 아닌 감독 정우성 “영화감독이 제 적성이더라고요”

영화 ‘보호자’ 감독 맡아 장편영화 데뷔  
“정우성스러운 영화로 관객과 소통 원해”  
기존 감독 이탈로 정우성이 연출 맡게 돼  
“감독 책임감 배우일 때와 또 다르더라”

“도전은 아픈 것이지만, 도전할 때만 만들 수 있는 반짝반짝 한 게 있어요. 도전 의식은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배우 정우성(50)이 아니라 감독 정우성이다. 한 시대와 세대를 상징하는 스타였고, 지금까지도 한국영화계를 상징하는 배우 중 한 명으로 왕성히 활동하고 있는 그가 영화 ‘보호자’(8월15일 공개)로 영화감독이 돼서 돌아왔다. 십 수 년 전부터 연기 뿐만 아니라 연출도 하고 싶다고 여러 차례 말해온 정우성은 50대가 돼서야 감독으로서 발을 내디뎠다. 영화 개봉을 앞두고 만난 그는 “말이 떨어서 담담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하면서도 “감독이 적성에 맞는 것 같다”고 농담을 던지는 여유를 보여줬다. 그러면서 정우성은 “정우성스러움으로 관객과 소통하고 싶다. 끊임없이 도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보호자’는 간결한 액션영화다. 10년 간 수감 생활을 한 전직 폭력조직원 수혁이 출소 후에 존재를 몰랐던 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자신을 제거하려는 조직에 의해 딸이 납치되자 그를 구하기 위해 나서는 이야기를 그린다. 정우성은 연출과 함께 주인공

수혁을 연기했다.  
‘보호자’는 원래 정우성이 수혁을 연기하기로 했던 작품이었다. 원래 연출을 맡은 건 어느 신인 감독이었다. 그런데 그 감독이 개인 사정으로 이 프로젝트에서 이탈하게 됐고, 프로듀서와 논의 끝에 정우성이 연출까지 맡는 것으로 결정됐다. “연출을 하기까지 과정은 이게 다예요. 단순하게 결정됐죠. 어쨌든 완성된 영화에 대한 평가와는 상관 없이 현장에서 감독으로서 연출하는 게 적성에 맞더라고요.(웃음) 물론 연출도 하고 연기도 해야 하는 장면을 찍을 땐 피로감이 엄청났습니다. 하지만 제 활영분이 없을 때는 현장에서 정말 날아갈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즐거웠고, 신났습니다.”  
줄거리만 보면 뻔하다. 국내의 영화를 꾸준히 봐온 관객이라면 ‘보호자’와 비슷한 설정의 영화를 5-6편은 너끈히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보호자’가 그런 영화들과 다른 점은 상대적으로 차분하고 고요한 분위기다. 일부 캐릭터는 과장돼 있다고 느낄 정도로 튀기도 하고 액션 영화에서 빠지지 않는 화려한 자동차 추격 장면 등도 있지만, 거칠다기보다

는 잔잔하고 유머러스하며 때론 귀여운 구석도 있다. 정우성 감독은 “클리셰를 극복하는 게 도전”이었다고 했다. “수혁은 평범하게 살려고 하지만 어떤 게 평범하게 사는 건지 몰라요. 그 답답함, 수혁의 우유부단함이 영화의 분위기를 형성하게 했습니다. 그는 폭력적 상황 속에 놓였던 과거를 후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폭력을 덜 쓰고 싶어합니다.”  
배우로서만 평가 받으면 됐던 이전 작품들과 달리 ‘보호자’에선 배우로서 뿐만 아니라 연출가로서 증명해야 한다. 배우로서 정우성의 역량은 이미 검증된 것이기에 아마도 ‘보호자’에 대한 평가는 감독 정우성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룰 것이다. 그러다 보니 그는 배우로서 개봉을 기다릴 때와 감독으로서 관객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기분이 완전히 다르다고 했다. “배우일 땐 제 캐릭터만 책임지면 되죠. 감독일 땐 영화에 나온 모든 캐릭터를 책임져야 하잖아요. 관객이 어떻게 봐줄지 불안감이 없을 수 없어요.”  
‘보호자’는 유해진과 김희선이 주연한 로맨틱 코미디 ‘달짝지근해:7510’과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펜하이머’와 같은 날 공개된다. 박스오피스 1위를 달리고 있는 ‘콘크리트 유도도야’와 여전한 흥행세를 보이고 있는 ‘밀수’와도 경쟁해야 한다. 흥행을 장담할 수 없고 때에 따라선 실패의 쓴맛을 볼 수도 있는 시장 상황이지만, 정우성은 배우로서 또 감독으로서 도전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 계속 다른 걸 할 겁니다. 다른 영역에 도전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새로운 캐릭터를



“도전은 아픈 것이지만, 도전할 때만 만들 수 있는 반짝반짝 한 게 있어요. 도전 의식은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감독이 적성에 맞는 것 같다”고 농담을 던지는 여유를 보여줬다. 그러면서 정우성은 “정우성스러움으로 관객과 소통하고 싶다. 끊임없이 도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배우일 땐 제 캐릭터만 책임지면 되죠. 감독일 땐 영화에 나온 모든 캐릭터를 책임져야 하잖아요. 관객이 어떻게 봐줄지 불안감이 없을 수 없어요.”  
“보호자”는 유해진과 김희선이 주연한 로맨틱 코미디 ‘달짝지근해:7510’과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펜하이머’와 같은 날 공개된다. 박스오피스 1위를 달리고 있는 ‘콘크리트 유도도야’와 여전한 흥행세를 보이고 있는 ‘밀수’와도 경쟁해야 한다. 흥행을 장담할 수 없고 때에 따라선 실패의 쓴맛을 볼 수도 있는 시장 상황이지만, 정우성은 배우로서 또 감독으로서 도전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 계속 다른 걸 할 겁니다. 다른 영역에 도전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새로운 캐릭터를 만나고, 새로운 영화를 만들어가겠다는 거죠. 까요. 끊임없는 도전, 그렇게 하고 싶어요.”  
뉴스

## 홍지윤 측 “전 소속사와 관계 끝 새 소속사와 계약 법적 문제 없어”



트롯 가수 홍지윤이 전속 계약 문제로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전 소속사와는 사실상 관계가 끝났고, 다른 소속사와 계약하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다.  
홍지윤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오름의 이경수 변호사는 14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홍지윤과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 사이에 있었던 전속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의 인용 결정으로 홍지윤과 전 소속사 사이의 전속 계약은 중지됐다”며 “그 의미는 홍지윤과 전 소속사 사이의 분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속 계약은 중지된다는 것이고, 그 사이에 홍지윤이 다른 소속사와 전속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홍지윤은 생각엔터테인먼트와 계약하고 컴백을 앞두고 있다.  
앞서 에스피케이엔은 “전속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은 분안 소송에서 전속 계약의 효력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일 뿐, 당사와 홍지윤 사이의 전속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했다.

## 방탄소년단 ‘퍼미션 투 댄스’도 넘겼다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히트곡 ‘퍼미션 투 댄스(Permission to Dance)’ 뮤직비디오가 유튜브에서 6억뷰를 기록했다.  
14일 소속사 빅히트 뮤직에 따르면, 지난 2021년 7월9일 공개된 ‘퍼미션 투 댄스’ 뮤직비디오의 유튜브 조회수는 이날 오전 4시21분께 6억 건을 돌파했다.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통산 열두 번째 6억뷰 뮤직비디오를 보유하게 됐다.  
‘퍼미션 투 댄스’는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고단한 하루를 보낸 모두에게 ‘춤은 마음 가는 대로 허락 없이 마음껏 춰도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댄스 팝 장르다. 발표와 동시에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2021년 7월 24일자)에 1위로 진입했다. 이 곡은 또한 누적 재생 수 3억 회 이상 작품에 주어지는 일본 레코드 협회 ‘트리플 플래티넘’(2023년 2월 기준) 인증을 획득했다.  
‘퍼미션 투 댄스’ 뮤직비디오는 여러 공간을 넘나들며 신나게 춤을 추는 밝고 활기찬 멤버들의 분위기를 담았다. 특히 뮤직비디오 후반부에 일곱 멤버가 군중과 함께 춤을 추는 장면에서는 국제 수어를 활용한 특별 퍼포먼스로 깊은 울림을 선사했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퍼미션 투 댄스’와 17억 뷰의 ‘다이너마이트’를 포함해 총 39편의 역대 위 조회수 뮤직비디오를 보유하고 있다.

## “포주가 되라고?” 女가수 성접대 제안에 회사 접은 래퍼



래퍼 MC한세가 연예기획사 운영 당시 겪은 충격적인 일화를 고백했다.  
MC한세는 최근 유튜브 채널 ‘근황올림픽’-’ 정의 태하고 2평 골방으로 들어갔던 ‘쇼미더머니’ 래퍼 근황’ 편에 출연했다.  
영상에서 MC한세는 “내가 2007년 즈음에 소

### 래퍼 MC한세, 연예기획사 운영 당시 겪은 충격적인 일화

속사를 차렸다. 음원은 잘 팔리는데 회사가 계속 적자였다. 그게 2억 정도까지 불어났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그는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건 어떤 제안이 왔는데 모 회장님이 ‘너희 회사에 소속된 여가수를 성 접대하면 생활비는 물론 투자를 해주겠다’고 했다”며 “이렇게 관리하는 엔터사들 많다. 너네도 그렇게 하라고 제안했다”고 과거를 떠올렸다.  
MC한세는 “이게 자괴감이 들더라. 포주가 되라는 것 아니냐. 이 감정을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때 ‘난 다시 회사 안 하겠다’고 생각했고

다 나눠줬다. 다 접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MC한세 “잡을 못 잡고 다음 날 헬스실수하고 이런 게 잦아지다 보니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매일 마시니 건강이 안 좋다고 느껴졌다. 돈을 갚아 나가는 과정에서 잔뜩이 됐다. 소주가 1330원인데 그거 이상으로 술을 못 마시겠더라”며 힘들었던 과거를 털어놨다.  
MC한세는 “2017년 ‘쇼미더머니6’ 나가기 전까지 녹음실, 오피스텔, 차 등 모두 다 팔아 빚 갚고 돈 없으니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 때우며 2평짜리 작업실에서 노래만 계속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 영화 매거진 인덱스, 영화 ‘동주’ 특별판 선보인다

### 강하늘·박정민·이준익·신연식 인터뷰 담겨

영화 매거진 인덱스(index)가 세 번째 책 ‘index 동주’를 이달 선보인다.  
색인출판사가 비정기 출간하는 영화 잡지 ‘인덱스’는 기억할 만한 한국영화를 한 편 선정해 해당 작품에 관한 사진과 글을 묶어 선보이는 책이다. 첫 번째 호는 윤가는 감독의 데뷔작 ‘우리들’, 두 번째 호는 봉준호 감독의 데뷔작 ‘플란다스의 개’를 담았으며, 이달 나오는 세 번째 책은 이준익 감독이 2016년 내놓은 영화 ‘동주’를 다룬다. 이 영화는 독립운동가 윤봉주와 송몽규의 삶을 그린 작품으로, 두 사람이 보

여준 각기 다른 방식의 독립운동을 담았다.  
‘index 동주’에는 배우 강하늘·박정민, 이준익 감독, 각본을 쓴 신연식 작가 인터뷰가 실렸다. 또 영화평론가 김철홍·홍수정 등 필진 6명이 쓴 ‘동주’에 관한 글도 볼 수 있다. 영화 촬영 장소에 관한 책을 내기도 한 이보미 작가가 ‘동주’ 촬영지에 다녀와서 쓴 글도 있다.  
‘index 동주’는 독립운동가들을 기리는 의미에서 15일부터 텀블벅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하며, 815권을 한정 판매한다. 펀딩 리워드로 소와다리 출판사에서 내놓은 윤봉주 시인



유고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정세현 ‘인덱스’ 편집장과 김철홍 평론가가 참석하는 영화 ‘동주’ 대담도 예정돼 있다.

## 이봉련·현봉식...‘이 연애는 불가항력’, 웃음 책임진다



드라마 ‘이 연애는 불가항력’에 유쾌한 웃음과 리얼리티를 책임질 연기 고수들이 출격한다.

### 오는 23일 JTBC 첫 방송

다.  
JTBC 새 수목드라마 ‘이 연애는 불가항력’(이하 ‘이 연애’) 제작진은 14일 개성 넘치는 ‘은주 시청 패밀리’ 조보아, 이봉련, 현봉식, 미람, 박경혜의 스틸컷을 공개했다.  
‘이 연애는 불가항력’은 300여 년 전 철저히 봉인됐던 금서를 연गे 된 말단 공무원 이홍조(조보아 분)와 그 금서의 희생양이 된 변호사 장신유(문운 분)의 불가항력적 로맨스를 그린

드라마다.  
진격의 말단 공무원 이홍조의 바람 잘 날 없는 일상을 함께 할 은주 시청 패밀리 활약도 빼놓을 수 없는 관전 포인트다.  
조보아는 “무말할 것 없이 완벽한 팀워크였다”라면서 “은주 시청 패밀리 모두 각자의 캐릭터를 200% 이상으로 만들어 주셔서 늘 웃기 바빴던 현장이었다. 은주 시청에 갈 때마다 설레고 행복했다”라고 전하며 기대 심리를 자극했다.  
오는 23일 오후 10시30분 첫 방송.